

아동용 철학책 개발 활기 띤다

철학동화 교육철학 등 다양하게 선보이... 번역서 치중 탈피해야

조기교육의 열풍이 오히려 교육의 기형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규 교과과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과도한 학습세례를 받아 지적 흥미와 의욕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학습효과를 기대하는 어른들의 무리한 요구로 전인교육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반복 주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교육사정은 국민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지식의 습득과 함께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체계적인 교과과정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들어 어린이 철학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철학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나 기관이 드물어, 교재개발이나 교수방법의 연구가 일천한 실정이라서 아직까지 철학교육에 관한 본격적인 국내 연구서나 교재는 선보이고 있지 못하다. 대신 번역서의 형태로 철학교육 이론서나 '철학동화' 등이 적잖이 나와 있다.

조기철학교육의 필요성 강조하는 이론서들

철학교육에 관한 이론서는 우선 철학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비롯해 어린이의 특성에 맞는 교육방법,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적용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사인 서광사에서 펴내고 있는 교육철학시리즈 가운데 「어린이와 함께하는 철학」(G.B. 매튜스, 서울교대철학연구동문회 옮김),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서울교대철학연구동문회 편역)과 「세살철학 여든까지」(M. 리프먼 외, 여훈근 외 옮김, 고려원) 등은 어린이 철학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주는 연구서들이다. 유치원과 국민학교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 책들의 공통된 전제는 "어린이를 보아온 종래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즉, 어린이들은 생각이 미숙하고 선악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오한 철학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식의 전통적 아동관이 그동안의 철학교육 부재의 가장 큰 장애가 되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들은 어릴때부터 면밀한 철학교육을 통해 그들의 사고력을 잘 가꿔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적절히 활용해 확실한 정답보다는 의미있는 질문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 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구체적인 철학교육 프로그



서점에 나와 있는 어린이 철학교육 관련서들. 좀더 다양한 교재 개발이 요구된다.

램이나 사고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고안할 때는 어린이들의 실제생활과 최대한 밀착시켜 전개해야 하며, 대화법 등 어린이 스스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철학,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T.W. 바이넨 외 엮음, 황경식 옮김) 「철학교육」(E. 마르텐스, 이기상 옮김)은 보다 일반적인 철학교육 이론서로 국민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현행 교육과정에서 점차 잊혀져가는 철학교육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하면서 올바른 철학교육의 도입을 단지 새로운 과목을 한가지 도입한다는 차원을 넘어 전 교과교육과정에 대한 성찰과 개혁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현재 철학교육이 지닌 문제점, 특히 현실과 괴리된 비실제적 학문이라는 비판을 수용해 임진중절, 인종차별, 안락사 등 정치·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보이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동화형식 띤 철학교재가 대부분

이상의 책들이 철학 교사를 위한 이론서·참고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실제 어린이들이 읽고 학습할 수 있는 철학교육서는 대부분 '철학동화'라는 이야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연스러운 철학교재로 읽히는 이들 철학동화중에는 국내 창작동화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87년에 처음 선보여 어린이 철학교육 논의를 점화시킨 창작동화 「노마의 발견」(어린이철학교육연구소 엮음, 해냄)은 기초입문, 알고 행동하기, 역경극복, 일기쓰며 철학하기

의 4권으로 나눠 각기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일선교사들의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구성이 돋보인다.

철학과현실에서서 펴내고 있는 '생각하는 어린이 철학동화책'과 '청소년을 위한 철학교실' 시리즈는 미국 아동철학개발원(IAPC)이 개발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해 번역한 것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생각굴리기」 「두리네반 아이들」 「바람이와 아름이」(이상 황경식 옮김) 「노마네반 아이들」(어린이철학교육연구소 엮음)은 주인공들이 학교와 집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통해 철학적·논리적 사고를 키워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한편 「생각하는 나무」 「시인들의 합창」 「흔들리는 교정」(이상 황경식 옮김) 등은 각각 윤리학, 글 쓰는 법, 사회철학을 주제로 한 청소년용 소설로 역시 IAPC 교재를 번역한 것.

이밖에도 같은 출판사에서 「생각의 숨바꼭질」 「돌을 깨는 마음」 「바보들의 행진곡」(이상 어린이철학교육연구소) 등의 창작동화가 나와있다. 세계명작과 국내의 위인들의 삶 속에서 철학적 교훈을 이끌어내는 「교실 밖의 어린 철학자」(전3권, 삼성출판사), 어린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케 하는 「혼자서 크는 아이」 「날마다 크는 아이」(이상 산하) 등도 어린이철학연구소가 펴낸 창작동화들인데, 서울교대 철학연구동문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 연구소의 그동안의 꾸준한 연구활동의 결과로 손꼽을 만하다.

국내 아동문학가들의 창작동화도 이들 철학동화의 활성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 아이들 1·2」(송명호, 글수레), 「철학하는 아이들」(권태문, 진화당) 「돌이는 똑 같아요」(박현서, 햇빛출판사) 「요술망원경」(이효성,

가나출판사) 「내 이름은 똑똑이」(이영, 동화문학사) 등이 그것으로 교육성을 보탠 철학적 문제들을 가정과 학교의 주변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이 책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아직 초보단계, 번역서에 의존

철학이 고도의 사변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특정한 어른들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경험함'이 가능한 모든 어린이들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어린이 철학교육에 대한 국내의 인식은 아직까지는 그리 높지 않다. 학계나 관련기관의 연구수준도 아직 초보단계 혹은 방법론 수립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 다양한 교재와 교수법이 개발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어린이 철학교육은 철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의 향상뿐 아니라 창조성과 윤리성의 계발, 대인관계의 성장, 일상적 경험에서 철학적 의미를 발견해내는 능력 등을 키우는 데 필수적인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방면의 대표적 연구기관으로 꼽히는 미국의 IAPC 교육 프로그램 창시자인 매튜 리프먼은 어린이 철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단순한 기계적 암기가 아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스스로 자신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면서 배우게 하는 해야 한다"는 점을 꼽고 있는데, 지금까지 선보인 교재들이 대부분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형식을 띠면서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전개되는 특징으로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화형식의 철학교재 이외에도 좀더 다양한 서술방식과 내용을 포괄하는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는데, 아직 순수한 창작물보다는 번역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어린이 철학교재가 '읽히는' 아동도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철학연구소 박민규 소장은 "현재 관심 있는 몇몇 철학교수를 중심으로 일선 교사와 대학원생들의 연구모임과 세미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창작동화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제나 교과과정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연구 개발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정소연 기자